

2020년 6월 18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장 마감 앞두고 코로나 우려 속 매물 출회

### 엔택트 관련주 강세 Vs. 금융, 소매, 에너지 부진

#### 미 증시 특징: 안전자산 선호 강화

미 증시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보험권 혼조 출발. 특히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은행, 소매, 에너지 업종이 부진한 반면, 엔택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 장세가 특징. 한편, 파월 연준의장은 정부의 재정 부양을 강조하고 금융시장 작동이 잘 되고 있다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 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매물 출회되며 약세 전환(다우 -0.65%, 나스닥 +0.15%, S&P500 -0.36%, 러셀 2000 -1.77%)

최근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자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다소 방어적인 성향으로 변화는 경향을 보임. 이는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특히 텍사스 지역의 코로나 입원 환자가 급증해 메모리얼 데이 이후 약 두배 정도 늘어났고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도 코로나 환자의 급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 물론 중국 북경에서도 환자수가 재차 증가세로 전환한 점도 영향. 이로 인해 경제 재개 기대를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던 은행, 에너지, 소매판매업종 특히 중소형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엔택트 관련 종목군이 강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가 진행. 더불어 대형 기술주가 투자의견 상향 등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로 상승 하며 나스닥이 상대적 강세

한편, 전일 장중에 상승분을 반납시켰던 파월 연준의장은 오늘은 전일 부담을 줬던 내용을 되도록이면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재정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 했으며,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라고 언급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더불어 “연준이 발표했던 긴급 정책들은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으며, 경기 회복시까지 지속될 것” 이라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 다만,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장 마감 앞두고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되며 하락 전환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0.14	2,141.05	홍콩항생	+0.56	24,481.41	+0.56
KOSDAQ	+0.00	735.40	영국	+0.17	6,253.25	+0.17
DOW	-0.65	26,119.61	독일	+0.54	12,382.14	+0.54
NASDAQ	+0.15	99,10.53	프랑스	+0.88	4,995.97	+0.88
S&P 500	-0.36	3,113.49	스페인		7,495.30	
상하이종합	+0.14	2,935.87	그리스		676.91	
일본	-0.56	22,455.76	이탈리아	-0.20	19,585.89	-0.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언택트 관련주 강세

아마존(+0.98%)은 니드햄이 투자의견을 매수로 커버리지를 시작하자 강세를 보였다. 애플(-0.14%)은 RBC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매물 출회되며 소폭 하락 했다. 주택 모기지 신청이 11년내 최고치를 경신하자 주택 인테리어 업체인 로이어스(+2.97%), 홈디포(+0.36%), 플로어엔 데코(+1.98%)가 강세를 보였다. 대체 육류 회사인 비욘드 미트(+2.90%)는 코로나 이후 더 건강한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오라클(-5.62%)은 실적 발표에서 예상을 하회한 매출을 발표한 여파로 하락했다. 노르웨이 크루즈(-8.40%)가 운항 중단을 2개월 연장 발표하자 급락했으며 로얄 캐리비안(-7.15%), 카니발(-6.51%) 등 여타 크루즈 운항 회사들도 동반 하락 했다. 더불어 JP모건(-2.53%), 웰스파고(-3.75%) 등 금융주 및 엑손모빌(-3.26%), 코노코필립스(-2.42%) 등 에너지 업종, 갭(-5.45%), L브랜드(-4.21%) 등 의류업종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이는 넷플릭스(+2.67%)는 물론 블리자드(+3.47%) 등 언택트 관련 종목의 상승을 이끌었다.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인 줌비디오(-2.39%)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4.69%	대형 가치주 ETF(IVE)	-1.08%
에너지섹터 ETF(OIH)	-4.49%	중형 가치주 ETF(IWS)	-1.35%
소매업체 ETF(XRT)	-0.72%	소형 가치주 ETF(IWN)	-2.60%
금융섹터 ETF(XLF)	-1.51%	대형 성장주 ETF(VUG)	+0.12%
기술섹터 ETF(XLK)	+0.04%	중형 성장주 ETF(IWP)	+0.1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50%	소형 성장주 ETF(IWO)	-1.12%
인터넷업체 ETF(FDN)	+0.11%	배당주 ETF(DVY)	-1.26%
리츠업체 ETF(XLRE)	-1.1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0%
주택건설업체 ETF(XHB)	-0.1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81%
바이오섹터 ETF(IBB)	+0.37%	미국 국채 ETF(IEF)	+0.16%
헬스케어 ETF(XLV)	-0.10%	하이일드 ETF(JNK)	-0.23%
곡물 ETF(DBA)	+0.15%	물가연동채 ETF(TIP)	-0.07%
반도체 ETF(SMH)	+1.06%	Long/short ETF(BTAL)	+2.3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에너지	297.89	-3.28%
소재	352.88	-0.76%
산업재	592.26	-0.66%
경기소비재	1,046.66	+0.07%
필수소비재	606.67	-0.20%
헬스케어	1,163.36	-0.08%
금융	399.73	-1.37%
IT	1,798.83	+0.03%
커뮤니케이션	184.17	+0.07%
유틸리티	298.30	-0.31%
부동산	223.37	-1.1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종목 차별화 장세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3% MSCI 신흥지수 ETF 는 0.96% 상승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15.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물론 미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시장 참여자들의 방어적인 성향을 높였다. 한편, 미 증시의 경우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이는 차별화를 보였다. 이 점에서 한국 증시 또한 방어적인 모습 속에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했으며, 상품시장에서도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인다.

비록 파월 연준의장이 전일에 이어 오늘도 지속적인 경기 부양정책을 유지한다고 언급하는 등 유동성 장세 지속 기대는 높지만,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언택트 관련주와 경기 민감주의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미-중 협상 결과가 중국 언론을 통해 나올 수 있어 오늘도 전일과 같이 중국 증시의 움직임에 연동한 장세가 진행 될 수 있어 중국 증시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모기지 신청자수 급증 지속

5 월 미국 주택 착공건수는 전월(93.4 만건) 보다 증가한 97.4 만건을 기록했으나 예상치(110 만건) 보다는 부진했다. 주택착공 허가건수는 전월(106.6 만건) 보다 증가한 122 만건을 기록했으며 예상치인 125 만건에 소폭 미진했다.

미국 모기지 신청지수는 지난주 대비 8.0% 증가했으며 재 신청 지수도 지난 주 대비 10.0% 증가했다 최근 이러한 미국의 모기지 신청 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미국 채권 수요 증가

국제유가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수요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하락했다. 다만, EIA 가 원유제품의 재고 감소를 발표해 낙폭은 제한되었다. EIA 가 지난주 원유 재고에 대해 예상(+90 만 배럴)보다 큰 122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솔린이 예상보다 큰 167 만 배럴 감소했고 정제유도 136 만 배럴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제유가 하락폭을 줄였다.

달러화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확산되자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엔화의 경우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있었으나 전일과 같은 발언들이 이어진 가운데 경기 회복까지 현재 정책을 유지한다고 언급해 달러 수요를 높였다.

국채금리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높아진 여파로 하락했다. 특히 텍사스 지역의 확진자 수가 지난 메모리얼 데이 이후 2 배로 증가했다는 소식과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20 여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한 점이 영향을 줬다. 다만,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등 지수가 견고함을 보이자 낙폭은 제한되었다. 한편, 2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지난번(2.53 배) 보다 상승한 2.63 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높아진 점도 금리 하락 요인이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소폭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코로나 재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하락 했다.